

## 메소아메리카 우주관과 거울의 표상\*

송상기(고려대 서어서문학과)\*\*

- I. 들어가며
- II. 서구에서의 거울과 성찰의 관계
- III. 메소아메리카에서의 거울의 용도
- IV. 테오티우아칸과 테노치티틀란에서의 거울의 표상
- V. 보르히아 사본에 나타난 거울 상징에 대한 해석
- VI. 결어

### I. 들어가며

생이란, 언제 진정 우리의 것이었던가?  
 우리는 언제 진짜 우리였던가?  
 잘 보이라, 아니다, 홀로는 결코 자기가 될 수 없다,  
 거울 앞에 서서 텅 빈 것을 느껴 아찔할 때,  
 얼굴을 찡그릴 때, 두려움과 구토를 느낄 때, 그때가 진짜다,  
 생이란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다, 우리 모두가 생이다,  
 -우리는 모두 바로 우리 자신들인 그 타인들을 위한  
 태양의 밥이다.

- 파스, “태양의 돌”, 504-511

거울은 서양문학과 사상사에 있어 반성적 성찰과 주체의 형성을

\* 본 논문은 2003년 고려대학교 교수특별연구비에 의해 지원받았음.

\*\* Sang-Kee Song(Korea University, Department of Spanish Language and Literature, sangkee@korea.ac.kr), “Mesoamerican Cosmology and Representation of Mirror.”

은유적으로 표상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왔다. 즉 주체와 세계(객체)를 사유하게 하는 이 상징은 그 문명의 시공간관을 표상의 도구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메소아메리카에서 드러나는 거울의 의미와 상징에 천착함으로써 그것이 어떻게 그들의 독특한 우주론적 세계관과 시공간에 대한 사유를 드러내는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필자는 서구의 근대성의 그늘이라 할 수 있는 중남미 고유의 세계관과 우주관을 다시 재조명함으로써 근대성의 사유가 간과하고 있는 새로운 지혜와 이성에 대한 요청을 보다 유연하고 본질적인 것으로 함의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먼저 본 논문은 서구에서의 거울의 표상을 정리하고, 메소아메리카의 우주관을 통해 드러나는 거울의 표상, 혹은 지상과 천상의 유비적 관계에 핵심이 되는 거울상에 관해 다루고자 한다. 하지만 단순히 서구와 메소아메리카의 거울과 시공간관의 차이를 비교하고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의 거울의 변천과정 속에서 잃어버린 관념들을 돌이켜 보고, 그것이 메소아메리카의 거울에 대한 관념과 어떤 유비적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서구에서의 거울과 성찰의 관계

라틴어로 성찰의 의미를 지니는 ‘speculum’은 본디 거울을 통해 하늘과 별들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단순한 의미로 쓰이다가 이후 지식인들에 의해 보다 추상적인 의미로 사유하고 성찰한다는 의미로 전이된다(Chvalier & Gheerbrant 1993, 474). 이러한 의미의 전이과정에서 거울은 자연스럽게 지식의 질서형성과정의 주요 도구가 되어왔다. 즉 시각에 의한 경험론적 인지도구가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성찰의 상징에 이르기까지 굳이 보르헤스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서구에서 거울과 백과사전을 위시한 서적은 세계와 자아 혹은 객체와 주체를 사유하는 주요 도구가 되어왔다.

거울을 바라보는 주체는 여기에 있으며 동시에 다른 곳에 있고, 거리를 헤아릴 수 없는 깊은 곳, 혹은 여기저기에 편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보다 정확하게는 상이 영사막이라는 물질 뒤로 나타나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은 거울의 표면을 보고 있는 것인지 그 너머를 보고 있는 것인지 야릇해진다. 거울에 비친 상은 이렇게 해서 거울 너머에 존재하는 비물질적인 다른 세계에 대한 감각을 일깨우고, 사람들에게 걸로 드러나는 세계를 넘어서라고 권한다. 이렇게 해서 거울은 프리즘처럼 시야를 흔들여 놓는다. 무엇인가를 보여주면서, 또 그만큼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거울에 대한 이러한 의문들, 그리고 놀라움은 거울을 통한 인식이 신비적이며, 또한 즉각적이지 않고 지연되는 양태임을 시사해준다. 대상을 비춰 상을 만들어내는 거울은 이 세계를 보여주면서 반성적 인식 주체를 지탱한다. 하지만 그 이전에 거울은 기호와 유추를 통해 나아가는 길, 보이는 것의 한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다른 곳’을 증명하는 간접적인 여정으로 보는 이의 시선을 끌어들인다. 만질 수 없고 섬세한, 물질 없는 형상인 거울의 상은, 모든 닳음의 근원이 되는 신의 형상이라는 전범이 갖는 현현(顯現)의 순수성을 보여준다(멜쉬오르 보네 2002, 127-128).

거울에 비친 상의 고찰은 플라톤에서 시작된다. 플라톤 이전에는 반사상은 살아있는 형상이었다.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이 나르시스를 물밑바닥으로 끌어들인 것처럼 말이다. 고대인들은 이 반영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 이 악어와 같은 영혼-그림자가 자신을 삼키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따라서 물속에서 자신의 반영을 보는 것은 죽음의 전조(前兆)라고 생각했고, 물속의 영혼이 자신의 반영 혹은 영혼을 삼킬지 모를까 생각했는데 프레이저는 이러한 두려움이 나르시스 신화의 기원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Frazer 1994, 233). 나르시스는 샘 밑바닥에 보이는 것이 바로 자신의 정신 혹은 분신이 발현한, 살아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것은 죽음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반사상이 영혼을 사로잡아버리기 때문이다. 고전 그리스에 돼서야 비로소 반사상은 그 신비한 마법의 힘을 잃고 모사(模寫) 혹은 외관(外觀)의 지위를 얻게 된다. 플라톤과 플로티누스에 이르러 거울은 영혼의 은유로 형상(form)의 반영으로 거울의 표면을 매끄럽게 닦아 형상을 충실

히 반영하는 것이, 즉 이데아를 온전히 사유하는 것이 철학자의 덕목이 되면서 거울의 표상은 주술적 두려움을 떨쳐 버리고 존재에 대한 철학적 사유의 은유로 변모된다.

바로크 시대까지는 거울을 언급할 때면 언제나 감각적 외관을 넘어서 환상을 분별하고, 그리하여 순수한 거울의 빛에 이르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그것이 감각의 세계를 믿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감각적 세계는 또 다른 실재의 반사상일 뿐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의 거울 혹은 뱀상 드 보베의 교의(敎義)의 거울 같은 역사의 거울, 즉 ‘스페큘룸(speculum)’이라고 이름 붙은 백과사전들은 당시의 지식을 집대성한 것으로, 인간을 거울에 비취보는 관측을 통한 사변(思辨)으로 이끌어간다. 주체와 객체 간의 극성(極性)이 존재하지 않던 중세에 관측을 통한 사변이란 거울에 비치는 두 주체 사이의 관계이다(멜쉬오르 보네 2002, 142). 거울을 통해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유추하기도 한다.

볼록 거울 대신 평평한 거울을 등장시킨 기술의 발달은 인식에 대한 인문주의자들의 새로운 관계를 반영한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이전과는 다른 법칙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다. 볼록 거울은 공간을 농축하여 구형의 세계를 제시함으로써 여러 가지 관심을 아우르지만, 그 굽은 모습은 상을 변형시킨다. 그에 비해 평평한 거울은 정확하지만 부분적인 상을 제시하며, 마치 연출자처럼 작용하는 한 가지 시점으로부터 시야를 틀 지운다. 단순히 상징적이고 유추적인 것에 머물지 않는 지식, 비판적이며 논증적인 지식의 전범인 거울은 새로운 표상 철학 안에 자리를 잡게 된다(멜쉬오르 보네 2002, 157).

임의적인 틀로 공간을 조직하고 구획하면서 거울은 관점의 상대성을 발견하고, 정신 작용의 복합성과 유동성을 복원한다. 그것은 일종의 거울-프리즘으로, 그 안에는 장면과 상들이 쌓이고 또 은유와 기호의 망 속에 그 의미작용들이 겹쳐진다. 이렇게 해서 단 하나의 근원, 즉 모든 닻음과 근원에 대한 참조는 사라지고, 인간 정신을 흥분시키는 끝없이 많은 반사상의 다양성과 변화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 III. 메소아메리카에서의 거울의 용도

만나지 못해도 난 찾는다, 난 홀로 시를 쓴다,  
 아무도 없고, 날이 지고, 해(年)가 간다,  
 난 순간적으로 떨어진다, 깊숙한 바닥까지,  
 거울 위에 펼쳐지는 보이지 않는 길,  
 거울은 이지러진 내 모습을 보여 준다,  
 나는 나날을 밟는다, 걸어온 순간들을,  
 내 그림자의 생각들을 밟는다.

- 파스, “태양의 돌”, 90-97

고대 메소아메리카 사람들은 돌거울을 의상의 장식이나 화장도구 혹은 신성한 예언을 하는 도구로 사용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용법은 수정(水晶)점을 보는 것이었다. 유카탄의 마야인들이나, 아스테카인들은 공기에 가득 채운 물의 반영을 통해 점을 보았다. 이것은 돌 거울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행하여진 오래된 전통일 것이다. 메소아메리카에서 돌 거울은 기원전 1500년경 올메카 문명의 태동과 함께 발견된다. 그 시기에는 대부분 오목렌즈형의 철조각이 돌 위에 썩워진 꼴이었는데 반사된 이미지는 좌우상하가 거꾸로 보이는 모습이었다. 올메카의 오목 거울 중 사이즈가 큰 것은 불을 지피는 용도로도 사용되었다.

메소아메리카 고전기에는 황철광을 사용하며 매끄러운 표면이 모자이크 모양으로 구성되도록 만들어졌다. 하지만 올메카의 오목렌즈와는 달리 황철광은 쉽게 녹이 슬어 지금은 빨강거나 노란 안쪽 표면만 남게 되었다. 테오티우아칸 문명에서 귀족들이 황철광 거울을 많이 사용하였다. 후기 고전기 툴라에서는 황철광 거울에 터키석 테두리를 하고 뱀 문양을 한 거울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스타일은 널리 유행을 해 남쪽으로는 치첸 이사에서 북쪽으로는 치와와 지방까지 널리 퍼졌다. 치첸 이사에서는 예언의 거울이라고도 볼 수 있는 태양의 모습을 한 원형의 돌이 발견되는 데 그 문양은 파칼의 전투를 그리고 있다. 천상에서 귀족 전사들이 전쟁에 개입할 때, 또 다른

세계에서 뱀들이 솟구쳐 나오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Freidel, Schule & Parker 2001, 324). 후기 고전기 멕시코 중부에서는 흑요석으로 거울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연기 나는 거울이라는 이름을 지닌 테스칼리포카를 상징했다. 이 신의 도상에는 뒤통수와 한쪽 발에 거울이 있다.

고대 메소아메리카에서 거울은 자연과 사회에서 생기는 개념이자 대상이었다. 아직 지나치지는 않았지만 꿰뚫어볼 수 있는 세계를 재현할 때, 거울은 초자연적 세계로 가는 동굴이나 출입구처럼 인식되었다. 거울의 밝고 반사하는 표면 때문에, 불타는 화로나 반짝거리는 물의 비유로 많이 사용되었다. 종종 거울은 태양으로 인식되기도 했는데, 특히 톨테카의 터키석으로 장식된 황철광 거울의 경우에 그랬다. 테오티우아칸에서 원형의 거울은 눈이나 얼굴 혹은 방패나 꽃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고대 민담에서 원형의 거울은 초자연의 세계로 가는 관문이나 태양, 달, 눈, 꽃의 상징의 의미를 지닌다(Miller & Taube 1993, 114-115).

고대 멕시코인들은 형광물질을 사용해 거울을 만들어 햇빛을 모으거나, 불을 지피 연기를 피우는 데 사용했을 것이다. 이 시기 대부분의 거울들은 불투명했지만, 그들은 거기서 희미한 반영을 보았을 것이고, 그것은 단순히 허망한 반사를 보는 것 이상의 그 무언가의 대상을 보는 것을 의미했다. 사실 그들은 거울에서 그들 자신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그 무엇을 본 것이다. 자신의 모습 뒤의 희미한 그림자처럼 감추어진 형상은 자신의 영적 파트너인 토날리(tonalli)로 믿었다(Furst 1994, 94). 귀족들은 가슴에 거울을 달고 다녔는데, 이는 곧 자신의 영적 힘을 강화시켜 줄 위안처를 품고 다녔던 것이다.

1) 나우알(nahual)이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는 분신이라면 토날리(tonalli)는 한 개인의 영적 그림자를 지칭한다. 토날리는 영혼이나 태양열 혹은 운명을 내포한다. 사아군에 의하면, 유아의 토날리(영혼)은 하늘에 있는 이중성의 장소인 오메요칸(Omeyocan)으로부터 내려온다(Miller & Taube 1993, 172).

#### IV. 테오티우아칸과 테노치티틀란에서의 거울의 표상

테오티우아칸은 하늘의 복사관 혹은 그 누군가가 우주의 신비를 풀어줄 신성한 얼굴을 발견할 수 있는 거울과 같이 묘사된다. 마야 인들은 테오티우아칸과 정기적으로 광범위한 교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들에게는 은하수가 천상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했다. 그들은 은하수가 죽음의 세계인 시발바(Xibalba)로 이끄는 길이라고 여겼다. 테오티우아칸의 ‘사자(死者)의 길’은 은하수를 표현하게끔 고안되어, 영혼들이 통과하는 지상의 별들의 한복판인 영혼들의 땅 사이에서 상징적인 통로로 기능했을 수 있다. 여기에는 ‘하늘의 거울’로서 대지의 이미지가 존재한다. 특정한 하늘의 형상과 중요한 하늘의 사건을 모방한 건축물들이 지상에 세워졌다. 알베르토 다비도프 미스라치(Alberto Davidoff Misrachi)의 『거울의 고고학: 메소아메리카 제의적 공간에 대한 연구』(*Espejo de arqueología: Un acercamiento al espacio ritual en Mesoamerica*)는 틀라, 테오티우아칸, 치첸 이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메소아메리카 피라미드 도시들은 바로 이 신의 지하로의 여행과 지상으로의 순환에 맞추어 구획되고 설계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아군은 테오티우아칸의 건설의 동인(動因)은 우주적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밝힌다(Sahagún 1979, 1). 어둠 속에서 신들은 테오티우아칸에 모여 누가 통치를 책임지고, 누가 태양이 될 지를 논의한다. 두 후보자인 나나우안친(Nanauatzin)과 테쿠시스테카틀(Tecuciztécatl)이 태양이 되겠다고 나서 각각의 산을 만들고, 그곳에서 나흘간 명상을 한다(Séjourné, 86). 그리고는 신성한 불 속에 몸을 던져 각각 태양과 달이 된다. 이때 테오티우아칸은 신들이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고행의 장소가 되고, 그 흔적은 해의 피라미드와 달의 피라미드로 남게 된다. 이 거대한 도시계획은 당시의 우주관의 산물이다. 그런데 승천한 해와 달은 제각각으로 움직여서, 인간들을 태웠고, 이내 자신들의 무질서한 움직임을 멈추게 된다. 다시 신들이 모여 해와 달의 규칙적인 순환을 위해 자신들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결심하게

된다. 테오티우아칸의 길들은 행성의 규칙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사자(死者)의 길은 달의 피라미드로 뻗어있고, 시의 성벽은 해의 피라미드를 향해 나 있다. 달의 피라미드로 가는 길은 굴곡이 저 있어 마치 달이 차고 기울듯이, 피라미드가 보였다 안보였다 하게 되고, 동서를 따라 세워진 성벽의 둘레에는 기존의 네 개의 태양의 시대를 상징하는 네 개의 작은 언덕이 보인다(Davidoff, 119). 즉 이 도시 자체가 우주의 거울인 것이다. 테오티우아칸은 이름 그 자체가 신이 거처하는 곳인데, 인간도 이곳에서는 신이 된다. 케찰코아틀이 금성이 될 때, 인간 역시 별이 된다. 케찰코아틀은 어깨에 통치의 책임을 이고 다니고 인간들에게는 문명을 주었다. 그의 도시 틀라는 문명화 되었지만 쇠퇴기에 있다. 테스칼리포카의 시종으로부터 흑요석으로 된 거울을 건네받은 케찰코아틀은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게 된다. 충격에 싸여 술을 마시고 여동생과 잠자리를 갖는 걱정의 시간을 보낸 후, 나홀로 명상의 시간을 갖고, 결국 틀라를 떠난다. 그가 떠난 후 틀라인들은 거울을 들고 유랑하게 된다. 그들은 한 줄로 거울을 어깨에 메고,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행진을 하는데(Sahagún 1979, 173), 시선을 가리는 연기가 나는 곳을 피했다. 멀리 본다는 것은 또 다른 세계의 이면을 보는 것이다. 그들은 거울을 보고, 별을 따라가다 새로운 태양이 있는 곳에 이른다. 태양은 새로운 여명의 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들은 흑요석 거울을 통해 멀리 보았으며, 하늘의 거울인 별을 통해 신성(神聖)에 이르려고 하였다. 바로 유랑 끝에 당도한 곳이 바로 신의 거처라고 믿은 테오티우아칸이고 유랑민들은 신의 우주의 소우주이자 신의 거울이라 할 수 있는 지상의 거처를 축조하였다.

아스테카의 테노치티틀란은 이러한 신성성을 담아내고자 하지만 기울어진 거울을 가지고 담아내었다. 아스테카의 틀라테오니(왕)들은 케찰코아틀을 배신한 것이다. 아스테카의 왕들은 살인중독증에 가까운 희생제의를 주관하는 한편, 인간 영혼의 영혼불멸성과 고대(틀라)의 가르침과 지혜를 찾을 것을 주장한다. 물론 그 원천에는 ‘깃털달린 뱀’이라는 뜻을 지니는 케찰코아틀이라는 신-왕이 있었다. 그는

인간을 제물로 바치지 말고 오직 ‘계절의 열매와 꽃들(Prescott 1957, 202)’만 바치라고 가르쳤다. 케찰코아틀 숭배는 죽음 저 너머의 삶의 신비와 합쳐졌다. 그리고 그는 지하세계로 떠났다가 돌아와 그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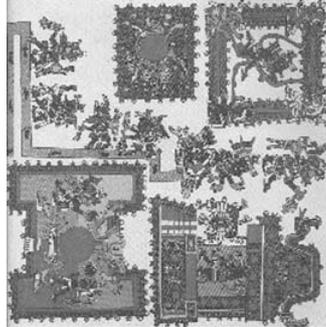
톨라로부터의 정신적 정통성을 획득하려 했던 아스테카인들은 ‘깃털 달린 뱀’에 대한 전승을 후대에 전하면서도 평화의 전령인 그가 돌아와 잔인한 희생제의 등 공포정치를 통해 제국을 유지하던 자신들의 세계를 파괴할 것이라는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다. 로레트 서전(Laurette Séjourné)은 사아군(Sahagún)의 『누에바 에스파냐의 만물사』(*Historia general de las cosas de Nueva España*)를 분석하며, 아스테카인들의 인간 희생제의가 영생추구와 연결된 영적인 입교(入敎)체계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데 기인한다고 주장한다(Burning Water, 17-18). 아스테카 희생제의의 잔인한 행위(껍질 벗기기, 심장 도려내기, 태우기 등)는 원래 신도들이 겪게 되는 영적 과정에 대한 은유였다는 것이다. ‘껍질 벗기기’는 인간이 자신의 물리적 신체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규율을 의미했다. ‘심장’은 그가 죽을 때 육체로부터 도려내어져 빛의 땅(태양) 속으로 해방되어질 영혼을 뜻했다. ‘태움’은 신생의 불, 그 속에서 영혼이, 자신의 이전 존재의 재로부터 불사조처럼 솟구쳐 나와 다른 세계 속으로 재생하게 됨을 의미했다. 그레이엄 햄콕은 이 비의종교는 신들의 영적 변용을 추구했는데, 그것은 감각세계에 부착된 것들의 껍질을 벗겨내고 ‘보석이자 풍부한 깃털’로 여겨지는 영혼을 물질의 거추장스러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44)이라는 다소 불교적인 해석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은 로페스 오스틴(López Austin)이 말한 ‘인간-신’이 되는, 즉 유한한 인간이 초월성을 획득하는 순간이며 여기에는 거울의 표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 V. 보르히아 사본에 나타난 거울 상징에 대한 해석

보르히아 사본에는 테오티우아칸의 형성과정과 그를 지탱한 신화와 우주관의 표상이 잘 나와서 메소아메리카 우주관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에 나타난 거울의 표상이 어떻게 작용되었는지를 살펴 그것이 어떻게 우주의 소우주의 중요한 기제가 되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지하세계를 뒤덮은 대지의 여신은 케찰코아틀을 자신의 품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 네 마리의 뱀이 화로에서 이 신의 정화(淨化)를 돕는다. 케찰코아틀은 진귀한 돌을 가지고 불을 만드는데, 이는 불의 심장-거울을 상징한다. 그는 태양처럼 대지의 여신의 뱃속으로부터 나온다. 뱀들은 서로 뒤엉켜 명석 모양으로 파리를 틀고 있는데 지도자는 이 위에 앉아 삶에서 죽음으로, 죽음에서 삶을 경험한다(Sahagún 1979, 81). 그는 이 위에서 인간-신이 되어 지상과 지하를 넘나든 것이다.

케찰코아틀이 인간에 대한 희생제의를 거부하자, 신들이 모였다. 테스칼리포카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육신을 직접 바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선 검은 거울을 쥐고, 그 거울을 케찰코아틀이 잘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시동들의 몸에 거울을 두르게 하였다. 시동들은 그에게 거울을 건네며 본인의 몸을 잘 보라고 말했다. 케찰코아틀은 자신의 몸을 보고 풀케 술을 마신 후, 허망해 하며 자신의 죽음과 자신이 가야 할 곳을 기억했다(Davidoff 1996, 29). 보르히아 사본 35번 그림에는 밤의 신이 케찰코아틀에게 산의 심장(테페요로트리 Tepelloloti)을 건네주는 모습이 나온다. 테스칼리포카를 따라 케찰코아틀은 어깨에 산의 심장을 지고 따라가는 모습이 나온다. 산의 심장은 케찰코아틀의 등과 일체가 되고 ‘깃털달린 뱀’의 옷에는 어느덧 산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케찰코아틀은 앞서 가는 테스칼리포카의 거울 방패를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보며 걸어간다. 케찰코아틀은 밤에 공놀이를 한다. 산의 심장은 구멍의 다른 쪽에서는 꽃으로 바뀐다.



<그림 1> 보르히아 사본 그림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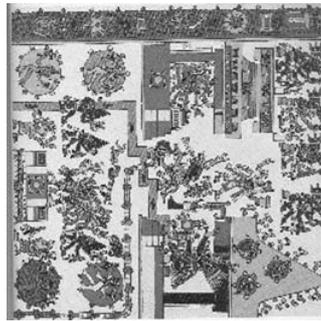
<그림 2> 보르히아 사본 그림36

36번 그림에서 거울을 들고 가던 테스칼리포카의 조개로 된 가슴 장식은 양쪽에 구멍이 뚫린 거울로 바뀐다. 또한 그의 거울 방패 역시 구멍이 난다. 이 구멍을 통해 심장은 꽃이 되는 것이다. 테오티우아칸에서의 뱀의 표상에서 꼬리에는 산이 그려져 있고 입에는 꽃이 그려져 있다. 이것은 케찰코아틀이 잿더미를 안고 서쪽으로 사라지는 행로를 나타낸다. 테스칼리포카 역시 이 행로를 따라가는데, 그의 잃어버린 한쪽 발은 종종 초승달의 상징으로 나타난다. 공놀이의 골대의 구멍은 별들이 대서양으로 사라질 때 통과하는 천상의 구멍이다. 공놀이 경기는 달과 별들의 이동의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금성(케찰코아틀)은 달-거울인 테스칼리포카의 항로를 따라 이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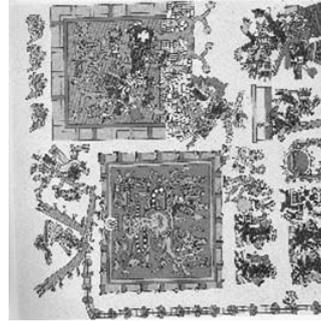
톨라의 해의 피라미드와 달의 피라미드는 서로 마주보며 있는데, 낮의 하늘과 밤의 하늘은 서로 다른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 두 천상의 세계는 바닥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피라미드 반대 모양으로 꼭대기가 밑으로 향한 모습으로 있다고 여겼다. 톨테카인들은 아래/위와 우월/열등의 개념에 대해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Davidoff 1996, 34).

케찰코아틀이 이고 가던 ‘잿더미’는 산의 심장을 나타낸다. 또한 속이 비어 있는 산에 대한 묘사가 신화 속에 종종 나오기도 한다. 이를 인간의 육체에 대한 유추라고 본다면 산의 심장은 육신의 폐와 심장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산의 심장은 구멍(터널)을 통해 틀라로칸(Tlalocan)<sup>2)</sup>으로 간다고도 한다. 여하간 이 여정

의 중심은 심장이 구멍 뚫린 거울을 통해 꽃으로 변하는데 있다. 로페스 오스틴은 신-인간이 영적 힘은 가슴 속에 있는 내적인 불 혹은 신으로부터 오는 신성한 잿더미와의 접촉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보았다(López Austin 1994, 124).



<그림 3> 보르히아 사본 그림37



<그림 4> 보르히아 사본 그림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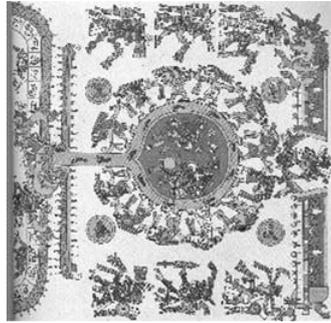
보르히아 사본 37번과 38번에는 케찰코아틀의 나우알인 개의 머리 형상을 한 솔로틀(Xolotl)이 나와 쾌락의 신인 아우이테오틀(Ahuiteotl)과 천상의 꽃의 신인 소치칼리(Xocicalli)를 만난다. 그리고선 현세의 삶이 없는 틀라로칸-타모안찬(Tlalocan-Tamoanchan)<sup>3)</sup>이 있는 서쪽으로 여행을 떠난다. 그 곳은 옥수수의 씨앗이 나왔고, 비의 신인 틀랄록이 물을 뿌린 곳이다. 솔로틀은 태양을 따라 바다에 몸을 던진다. 태양은 거울로 가득찬 물에 잠기고 틀랄록의 몸은 거울의 나무로 변한다(Davidoff 1996, 42-43).

다시 사본 39-40번에는 케찰코아틀이 지하세계를 뒤덮고 있는 여신의 뱃속에 있는 밤의 동굴로부터 나온다. 그림 중심에는 각각 해와 달을 상징하는 붉은 케찰코아틀과 검은 케찰코아틀이 있다. 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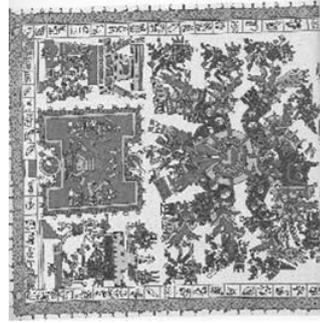
2) 천상의 네 번째 세계를 고대 멕시코인들은 ‘틀라로칸’이라 불렀다. 천상에 있기 때문에 비의 신 틀랄록의 파라다이스라고 부르기도 한다(Miller & Taube 1993, 167).

3) 타모안찬은 인간의 기원이 나타나는 신화적인 낙원이다. 그곳에서 신들은 지하세계에서 흠친 뼈와 고행을 한 후의 피로 현세의 인간을 만들어냈다. 플로렌틴 고문서에 의하면 타모안찬은 우아스테카 마야의 걸프만에 있다고 한다. 이는 마야어로 ‘안개 낀 하늘의 장소’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습기가 많은 걸프 만의 기후에 어울리는 이름이다(Miller & Taube 1993, 160).

은 대륙을 만들게 한 원초적 물에 쪽 뺨어 있는 신화적 악어이자 은하수를 상징하는 시팍틀리(Cipactli)의 입 속으로 삼켜진다. 은하수는 생명의 기원이다. 악어의 몸속에 있는 태양의 빛과 심장들은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나온다. 태양은 이내 식어 빈사상태에 빠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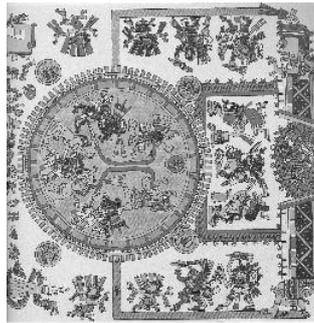


<그림 5> 보르히아 사본 그림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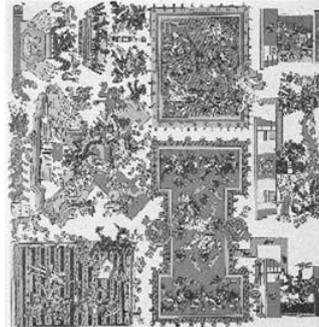


<그림 6> 보르히아 사본 그림40

41-44번에서 케찰코아틀은 저승의 신인 믹틀란테쿠틀리(Mictlantecuhtli)가 파 놓은 구멍에 빠져 죽음의 세계로 간다. 그가 가지고 있던 깨어진 뼈들을 타모아찬에 가지고 가서 자신의 성기에서 나오는 피로 섞은 후 생긴 새로운 인간들을 만들어낸다.



<그림 7> 보르히아 사본 그림41



<그림 8> 보르히아 사본 그림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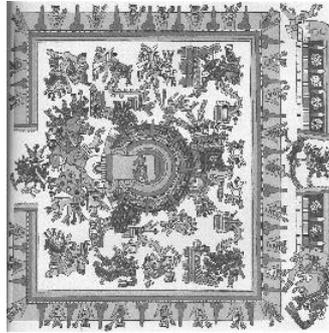
새-인간이 독수리에게 심장을 바친다. 여기서 독수리는 다름 아닌

태양이다. 이 사건의 엄청난 의미가 인간을 보다 멀리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새로 변신시키게 했다. 다비도프가 소개하는 또 다른 전승에서, 독수리 인간이 바다 위에 있는 셋별의 심장을 갖는다. 독수리 인간은 태양으로 변해버린 인간이다. 태양이 금성의 심장을 갖는다는 것은 태양빛에 금성이 가려지고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태양은 셋별의 부리로 쪼아서 새겨진 독수리의 부조(浮彫)가 되었다. 이 신화는 케찰코아틀이 불에 소진되고, 그의 심장이 수많은 새들로 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Davidoff 1996, 78). 여기서 이미지들은 서로 중첩되고 교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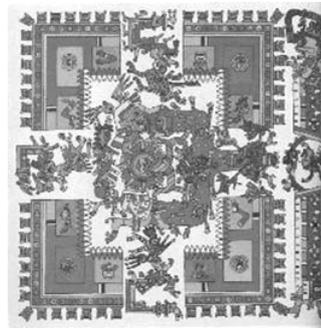
신-인간이 새가 되고, 새는 태양이 되고, 그 빛은 심장이 된다. 케찰코아틀의 심장은 셋별이 되고 그 중심에 있는 우주적 바람을 상징하는 에에카틀(Ehécatl)은 빛의 투창과 거울을 가지고 다닌다. 끈과 깃발이 있는 거울은 나무에 관통한다. 나무는 거울의 나무가 되었다. 금성은 투창사이를 뚫고 가는데, 이는 금성이 태양에 합체되었음을 의미한다. 태양에 소진된 금성의 잿더미 속에서 심장이 죽음의 여신의 도움으로 발에 거울을 가지고 있는 테스칼리포카가 된다. 한 신의 몸에서 다른 신이 나오는 것은 천체의 운행의 다른 국면, 즉 달의 시대를 말해주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별들의 이러한 순환은 신-인간의 변신을 돕는 것이다. 어쩌면 케찰코아틀은 한 귀족으로서 이러한 신화적 변신을 통해 금성의 주기에 맞춘 여정에 따라 자신의 다양한 존재양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중국에는 신이 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 사체가 바다 속에 몸을 던진 사건과 케찰코아틀의 심장이 셋별이 되어 태양빛 속에 녹아드는 과정은 은유적으로 서로 연결되며, 여기서 개인의 세계와 우주의 세계, 즉 소우주와 대우주는 서로 거울상처럼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거울에는 두 가지 종류와 기능이 있다. 거울은 그 반사면으로 자신을 비추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구멍 뚫린 거울이나 투명한 거울은 앞으로 가야할 이정표를 보여준다. 귀족이 어깨에 메고 가던 돌은 가공하여 녹색의 발광의 돌, 즉 신성한 거울을 뜻한다. 여기서 돌은 산에 대한 환유이다. 이러한 귀족의 돌과는 달리 검은 반사하는 빛

의 질이 떨어지는 돌 역시 평민들에게 신에 대한 집단적 체험을 알려주는 거울의 역할을 하였다. 이 검은 돌이 테스칼리포카가 케찰코아틀에게 비춘 거울이며, 결국 케찰코아틀은 순례를 떠나 신성한 육신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이 검은 거울이 내면을 직시하게 하는 거울이었던 것이다. 양쪽에 구멍이 난 흰 거울은 밝고 투명해서, 귀족이나 지도자가 사용했다.



<그림 9> 보르히아 사본 그림43



<그림 10> 보르히아 사본 그림44

테오티아칸에 모인 유랑인들은 횃불과 거울을 들고 어떻게 도시를 건설할지에 관해 논의했다.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한 일은 발밑에 놓여 하늘과 횃불을 반사하는 거울을 보는 것이었다. 거울은 현자에게 죽음의 세계에 있는 타자의 얼굴도 비추었다(Sahagún 1979, 246). 양면에 구멍이 뚫린 거울은 자신들의 가슴에 뚫린 구멍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에 대한 은유라고 다비도프는 주장한다(1993, 132). 신들에게 적합한 거울을 만드는 물리적 과정은 거울을 통해 바라본 자신에 대한 내면적 투사를 하는 영적 과정에 대한 유추라는 것이다. 현자들은 하늘이나, 죽음의 세계에서 투사한 지상의 모습을 테오티아칸이라는 거대한 거울에 새겨 넣은 것이다.

신화에서 앞선 사람의 어깨에 걸친 거울의 모습은 방패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종종 창과 함께 그려지기도 한다. 그래서 거울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이미지가 창처럼 폐부를 찔러 심장을 도려내거

나, 방패나 거울의 구멍 뚫림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가슴-산 속에서 신성한 불이 심장을 뱃속에서 솟구쳐 나오게 해 나비처럼 위로 올라 두개골-하늘을 향해 오른다. 하늘을 잠그기 위해 신성한 불은 골반-산을 타고 내려와 항문을 통해 빛처럼 사라진다(Davidoff 1993, 142). 인간의 토날리(영적 분신)가 나오는 과정은, 별들이 상승하고, 우주 안에 빛을 발하는 별들의 원리를 통하여, 즉 인간의 육체와 천체의 거울상으로 이해된다. 빛을 하늘로 뿜어내는 불 혹은 인간의 심장은 바로 거울에 대한 은유이다.

## VI. 결어

단테의 『신곡』에서 주인공이 천상의 다양한 층위를 넘나들되, 거울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처럼 신-인간 혹은 케찰코아틀은 다양한 삶과 죽음의 세계를 넘나든다. 그가 가슴 깊숙이 품던 산(심장)이 물에 비치면 꽃이 되고, 나비는 하늘로 올라간다. 고대 멕시코인들에게 있어서, 인간은 육체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우주와 그 작동원리에 대한 은유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영혼이 움직이는 메커니즘까지도 우주의 움직임과 유비적으로 파악된다. 사아군을 비롯한 프란시스코파의 수도사들은 거울 속에 비친 어두운 잔영을 신의 은총과 빛으로 닦아낼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그들은 그 어두운 잔영 속에 베어있는 고대 멕시코인들이 가지고 있던 우주의 신비와 환영을 신앙의 빛으로 제거하고자 했지 않았는가? 후아나 수녀는 『꿈』에서 칠후 같은 어두운 그림자를 다시 복원시키며 진리를 갈구하고자 했으나, 밝게 떠오르는 태양의 빛에 이내 깨어나고 만다. 어쩌면 그녀의 영혼 속에서 떠오르는 불 속의 고통 속에서 영혼의 해방을 갈구하며, 나비가 되어 저 하늘을 날던 테오티우아칸을 지은 유목민들의 환영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엘 타히의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황철광 거울이나, 어두운 심연을 드러낼 것 같은 흑요석 거울은 현실의 반영을 넘어선 상상력의 투영으로 고대 멕시코인들에게

우주의 운행원리라고 생각되어진 세계를 반영하고 후아나 수녀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심연의 세계로 인도한다.

푸엔테스는 『라틴아메리카의 역사』(*El espejo enterrado*)에서 엘 타힌에 있는 토토나카족의 고대유적 가까이에 있는 무덤 속에 묻힌 오목거울이 사자(死者)를 지하세계로 데려갈 때 쓰였을 것이라고 추측한다(푸엔테스 1997, 10). 하지만 단순히 이 거울은 죽은 영혼을 지하의 죽음의 세계로만 인도하진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이 거울은 하늘을 향해 있으며 나비처럼 날아갈 영혼의 순례(삶-죽음-삶)를 계시적으로 비춰주는 도구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또 다른 파묻힌 거울의 예로 태양의 돌을 들 수 있는데, 오랫동안 정교한 기호로 가득 찬 아스테카 달력인 이 거대한 돌은 땅 속에 묻혀 있었는데, 그 이유는 화산이 폭발하여 다섯 번째 태양의 세계가 끝이 날 때, 태양의 돌이 땅 속에서 솟구치며 올라오며, 목시록적 계시를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그렇기에 고대 멕시코인들은 다섯 개의 태양의 역사를 새겨 넣었고, 그 장구한 세월들은 이 돌의 좁은 공간 안에 응축되었던 것이다. 아스테카의 달력이 땅의 움직임 을 뜻하는 4올린(Olin)으로부터 시작되는 연유도 여기에 있다. 태양의 돌이 목시록적 시간과 창세기적 시간이 합일하는 계시적 순간에 하늘로 오르며 우주와 합쳐지길 바랐던 아스테카 장인과 천문학자의 소망이 담겨진 일종의 ‘타임캡슐’인 셈이다.

푸엔테스는 고대 지중해 전통에도 거울을 땅에 묻는 전통이 있다는 예로 라몬 시라우의 『묻혀진 거울』(*L'Espil soterrat*)을 소개하며(푸엔테스 1997, 10), 이것으로부터 지중해와 중남미가 서로 비추는 거울상에 있다는 데 착안하여 쓴 서로 상호관계에 있는 통합적인 문화사책을 쓴다. 앞서 언급한 서양전통에서의 거울의 표상을 돌이켜 본다면, 적어도 고대에서는 서양과 메소아메리카가 상동적인 관계를 가졌다고 본다. 고대에 유추(類推)를 통한 추론을 정립하고 상징적 사유를 정립하기 위해 거울은 사용되었다. 희미한 닳음의 관계로 원래의 모습과 연결되는, 고대 거울의 어둡고 빛나는 희귀한 상은 초현실적 현실의 반사상을 보여주었다(멜쉬오르 보네 2002, 312). 그런

데 이 유추관계에 있어서도, 고대 서구적 전통에서는 반사상이 자신의 영혼을 뺏어갈지 모를까 하는 두려움이 컸다면, 메소아메리카에서는 인간세계와 초월적 세계를 연결하는, 즉 영혼의 자유로운 해방으로까지 나아가기 위한 우주와 인간 실존의 유추관계에 있었다는 점에서 그 유추의 양상의 차이는 있다. 만일 툴테카인들이 자신들의 신을 앗아간 거울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거울을 가지고 순례를 하며, 새로운 신성의 땅에 다다른 것일 것이다. 물론 서양이나 메소아메리카나 예언자의 거울이나, 태양의 돌처럼 계시적 속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그런데 태양의 돌의 계시적 내용은 미래의 순환을 예언할 뿐 아니라, 응축된 과거를 파노라마처럼 보여 준다는 점에서 예언자의 거울보다는 르네상스 이탈리아의 기인 지올리오 카밀로가 생각한 기억의 극장에 가깝다.

결정적인 서구와 메소아메리카에서의 거울에 대한 가치판단의 분기점은 서유럽이 중세에 다다를 때이다. 루시퍼와 같은 거울의 어두운 잔상은 자명한 신의 빛으로 없애야 했지만, 툴테카인들은 흑요석 거울의 어두운 잔상에서 신-인간이 될 수 있는 환영을 보았다. 이윽고 서양에서는 평면거울을 만들게 되면서, 주체는 더 이상 신비스러운 타자를 보지 않고, 자신의 역사적이고 육체적인 실존 안에서 남과 구별되는 자기 반영으로서의 주체를 투사하게 되었다. 거울이 완전히 투명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되면서 신비가 사라진 것이다. 서양에서는 광학과 유리 기술의 발전으로 형이상학적 신비는 사라져버리고 만다. 이제 더 이상 거울나라의 엘리스는 존재하지 않는 근대의 평면적 표상체계 안에 포획되었다.

메소아메리카에서도 거울이 갖는 툴테카나 마야의 신비스러운 은유의 아름다움은 제정일치 사회를 이루는 중요한 기재로 사용되었지만, 아스테카에서는 이것이 제국을 형성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우주적 거울이 공포를 안겨주는 기재가 되면서 기이한 방식으로 현실화되었다. 목테수마는 새의 빛에 걸린 거울에서 코르테스라는 케찰코아틀의 환영을 보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인간-신으로 추앙받던 그가 본 것은 거울의 은유를 재현하지 못한 자신의 허물어진 신성에

대한 직시였다.

이후 오목 거울이나 황철광, 흑요석 거울은 더 이상 누에바 에스파냐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 근대의 표상체계인 평면적인 매끈한 거울로서 비견되는 표상체계 속에 편입되면서 거울의 은유, 즉 순수한 영혼의 재생과 정화, 소우주 등의 관념이 배재되었다. 근대성의 그늘 속에서 잃어버린 거울의 표상을 찾는다는 것은 곧 고대 멕시코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초월의 세계에 대한 탐구이다.

### Abstract

Mirror has been major instrument that represents self-reflection and formation of subject in Western history of thoughts. This study delves into the meaning and symbol of mirror in Mesoamerica to figure out its implication as a micro-cosmos of time-space conception and city planning such as Teotihuacan. In ancient Mesoamerica, mirrors often represented objects and concepts occurring in nature and society. By representing a world that could be looked into but not passed through, mirrors could be considered as passageways for the supernatural. Because of their bright reflective surfaces, they were compared to fiery hearths, shining pool of water, sun, flower and heart.

Key Words: Mesoamerica, mirror image, Codex Borgia, Quetzalcoatl, Tezcalipoca/  
메소아메리카, 거울 이미지, 보르히아 사본, 케찰코아틀, 테스칼리포카

논문투고일자: 2007. 01. 22

심사완료일자: 2007. 02. 13

게재확정일자: 2007. 02. 20

## 참고문헌

- 클로드 보테, 시드네이 피카소(1995), 『마야: 잃어버린 도시들』, (김미선 역), 시공사.
- 박종욱(2005), 『라틴아메리카 신화와 전설: 고대 문명의 수수께끼에서 신화적 상상력까지』, 바움.
- 사빈 멜시오르 보네(2002), 『거울의 역사』, (윤진 역), 에코.
- 세르주 그뤼진스키(1995), 『아스테카 제국: 그 영광과 몰락』, (윤학로 역), 시공사.
- 송상기(2002), 『멕시코의 바로크와 근대성』. 고려대 출판부.
- 카를로스 푸엔테스(1997), 『라틴아메리카의 역사』, (서성철 역), 까치.
- Chevalier, Jean and Alain Gheerbrant(1993), *Diccionario de los símbolos*, Barcelona: Herder.
- Davidoff Misrachi, Alberto(1996), *Espejo de arqueología: Un acercamiento al espacio ritual en Mesoamerica*, México D.F.: Danzig Monastir.
- Díaz, Gisele and Alan Rodgers(1993), *The Codex Borgia: A Full-Color Restoration of the Ancient Mexican Manuscript*, New York: Dover Publications, INC.
- Florescano, Enrique(1994), *Memoria mexicana*, Segunda edición, México D.F.: Fondo de Cultura Económica.
- Frazer, James Gorrge(1994), *La rama dorada: Magia y religión*, tr. Elizabeth y Tadeo I. Campuzano, México D.F.: Fondo de Cultura Económica.
- Freidel, David, Linda Schele & Joy Parker(2001), *El cosmos Maya: Tres mil años por la senda de los chamanes*, México D.F.: Fondo de Cultura Económica.
- Keen, Benjamin(1990), *The Aztec Image in Western Thought*. New Brunswick, New Jersey: Rutgers University Press.
- Kubler, George(1991), *Esthetic Recognition of Ancient Amerindian Art*,

-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Libura, Krystyna M.(2002), *Los días y los dioses del Códice Borgia*, México D. F.: Ediciones Tecolote.
- León Portilla, Miguel(1993), *La filosofía náhuatl*, México D.F.: UNAM.
- López Austin, Alfredo(1994), *Tamoanchan y Tlalocan*, México D.F.: Fondo de Cultura Económica.
- \_\_\_\_\_ (1998), *Hombre-Dios: Religión y política en el mundo náhuatl*, México D. F.: UNNAM.
- McKeever Furst, Jill Leslie(1994), *The Natural History of the Soul in Ancient Mexico*,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Miller, Mary and Karl Taube(1993), *The Gods and Symbols of Ancient Mexico and the Maya: An Illustrated Dictionary of Mesoamerican Religion*, London: Thames and Hudson.
- Prescott, William H.(1957), *History of Conquest of Mexico*, New York: E. P. Dutton.
- Sahagún, Fray Bernardino de(1979), *Códice Florentino*, México D.F.: AGN.
- \_\_\_\_\_ (1979), *Historia general de las cosas de Nueva España*, México D.F.: Porrúa.
- Saunders, Nicholas J.(2001), “A Dark Light: Reflections on Obsidian in Mesoamerica”, *World Archaeology*, Vol. 33, No. 2.
- Séjourné, Laurette(1994), *El universo de Quetzalcóatl*, México D.F.: Fondo de Cultura Económica.
- Soustelle, Jacques(2003), *La vida cotidiana de los Aztecas en viseras de la conquista*, México D.F.: Fondo de Cultura Económica.
- Townsend, Richard Fraser(1979), *State and Cosmos in the Art of Tenochtitlan*, Washington D.C.: Oaks Research and Library Collection.